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10)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www.bkc.org ♦ bethel@bkc.org  
 Tel: 949.854.4010 ♦ Helpdesk(Text-only): 949-229-1181

각 교육부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영아부(18-36개월) / 본당 2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37개월-PreK) / 할렐루야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K-1(킨더-1학년)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온라인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r.)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스튜디오),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비전채플), 11:00AM(스튜디오)
- 한어중고등부(CIM) / 살롬채플, 온라인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소망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크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1:15P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3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6시 45분 · 목요일/오후 12시 30분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Prisider 예배 인도자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 사도신경 .....All together 다같이
-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찬43/새40장)
- 기도 Prayer.....All together 다같이  
1부/박재문 집사 2부/김병인 장로 3부/김문경 장로 4부/김영재
-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사랑은...(작곡 Joseph M. Martin)
-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 Media 방송실
- 유아 세례식(3부) Infant Baptism ..... Asher Ryu 류리안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 1, 2, 3부/스가랴 9:11-17 ..... All together 다같이  
4부/마태복음 5:23-26
- 말씀 Message ..... 1, 2, 3부.....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Return & Rebuild(14) 스가랴 강해 나귀새끼 탄 용사

4부 ..... Rev. Abel Kang 강문구 목사  
 말레 아난(3) 밀려오는 용서의 구름

- 적용찬양 Song in Response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하나님의 음성을, 갈보리 산 위에(찬135/새150장)
- 헌금 특송 Offering Song ..... Yeonhwa Na 라연화 성도
-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Commitment & Offering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거기에 있겠습니다
- \*축도 Benediction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 ★ 교회학교 예배가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 다음세대를 일으키십시오!

Let's Raise Up The Next Generation!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저는 지난 10년 동안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이미 목사 안수 받은 분들도 계시고 교회에서 전도사로 섬기는 분도 계십니다. 평신도이면서 신학에 관심을 두고 궁금한 것을 많이 안고 오는 학생도 있었고, 어쩌면 별생각 없이 교실에 질문도 없이 앉아 있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학생의 반은 이미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신학을 준비해서 신학교로 들어온 분이 많지는 않았습니니다. 요즘은 신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점점 줄고 있어서 그 여파가 이미 벌써 교회에 미치고 있습니다. 헌신된 사역자들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큰 신학교가 올해 처음으로 정원 미달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군소신학교들은 이미 정원을 줄이고, 교수진을 축소하고 예산을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인구 절벽을 맞아서 나라의 미래까지도 불투명하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은퇴 목사님은 교회도 축소해야 한다고 합니다. 인구가 줄고 있고, 아이를 낳지 않으므로 초등학교 건물도 점점 비어 가는데, 교회 시설도 줄여 가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이 여파가 이민 교회에도 여지 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현실이 점점 피부에 와 닿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까운 지역에 있는 많은 한인 교회에 교회학교가 없다고 합니다. 어른들만 가는 교회가 아닌데, 아이들이 없어서 교회학교가 없어진 것입니다. 옛날 우리가 자랄 때는 어른들 숫자보다 아이들 숫자가 교회에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 수가 어른들 수보다 적습니다. 그것이 현실이고, 앞으로 더 심각해질 모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은 결과가 쓰나미처럼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가오는 현상을 그냥 그대로 보고만 있을까요? 아니면 흐름에 따라 줄여야 할까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에 우리 교회와 나라의 미래를 걸고 투자해야 할까요? 저는 후자를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힘들어도 다음 세대를 위해 최고 최선의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동원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저는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온 교회가 동원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몇몇 목회자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동원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모두 함께 미래를 사는 최선이라 믿습니다. 현상에 주눅 들지 말고, 탁류를 거슬러 헤엄치는 살아 있는 물고기처럼 흐름에 도전하며 다음 세대를 설레며 기대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일 교회학교와 더불어 교회에서 후원하는 주중 학교가 그 기대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미래의 다니엘 에스더 같은 복의 근원들을 배출하는 베델이 되십시오.

I have taught seminary students for the last 10 years. Some are already ordained ministers. Many works as pastors(evangelists) at churches. There were students who were lay-persons with deep interest in theology. They came with lots of curiosity. Some students thoughtlessly sat through classes without any questions. Half of the students had jobs aside from school. Not many students had come prepared for seminary after college. Nowadays number of seminary school applicants are in decline. Impact of this may, in fact it already has reached churches. It's not easy to find pastors with dedication for the church.

For the first time, one of the largest seminaries in Korea did not have enough applicants to reach full capacity of student enrollment. Other seminaries in the outskirts of country have already reduced their student enrollment, reduced teaching professors, and reduced budget. Population drop is causing people to worry about uncertainty of the country's future. One retired pastor mentioned that churches must also reduce. Decrease in population, from not having any children, is causing elementary schools to become empty. Then it's only natural that church facilities also need to be reduce.

The trend is also showing up in immigrant churches. This is the reality that is reaching us closer than we want to accept. Many Korean churches in nearby areas don't have Sunday schools. These churches are not just for adults. Because there aren't any children, there is no Sunday school. I remember when we were growing up, there were more kids than adults in churches. However, now, we have more adults than children. Our church is no exception. This is the reality, and it will become more serious in the future.

We have not taken the God's command to “increase in number and fill the earth” seriously. As a result, we are getting hit like a tsunami. What should we do at a time like this? Do we just sit back and watch the situation get closer? Or do we follow the trend and reduce? Or rather, should we be more actively investing in our next generation with our church and country on the line? I choose the latter. Even though it's hard, I think we need to provide the best education to our next generation. An African proverb says, “It takes a village to raise a child.” I believe it takes a whole church to raise one person of God. This isn't up to just a few pastors. We all must mobilize. This is the best way for us, together, to live our future. Don't shy away from reality. We must challenge ourselves like fish swimming against the current, and become a church with hope and expectation for the next generation. Our weekend church school along with week-day school run by church will lead that expectation. Let's become Bethel that provides source of blessings like Daniel and Esther.

주일설교시리즈 **스가랴 강해**

# RETURN & REBUILD (14)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한요 목사

## 나귀새끼 탄 용사

(속 9:11-17)

- 1.** 스테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행 7:54-60) 예수님 믿고 모든 일이 잘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런 비슷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2.** 하나님의 약속은 당신의 백성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구덩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11절, 참고/ 창 37장, 렘 38:6, 시 30:3, 40:2)
- 3.** 하나님께서 전쟁의 용사가 되어 당신의 백성을 위해 싸워 주신다 하셨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13-14절)
- 4.** 승리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은 보석같고, 풍년의 곡식 같고 새포도주 같다고 했습니다.(17절) 계시록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찾아 비교해 보십시오.(참고/ 계 19:1, 7)
- 5.**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요한은 최후에 목이 잘려 순교당합니다. 그때 주님이 위로해 주셨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가 최후의 승리를 믿고 달려가야 할 위로는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참고/ 마 11:11, 계 6:9-11, 행 7:55)

**적용하기**



■ 적용찬양: 하나님의 음성을, 갈보리 산 위에(찬135/새150장)

수요 예배 소개

# 2+2: 심볼리즘과 룯기



8월의 수요 예배는 2+2 이벤트로 먼저 2번의 성경 배경 특강에서는 성경에 나타난 심볼리즘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어지는 2번의 말씀 시간에는 지난번 오늘 나를 비추는 사사기에 이어 룯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 심볼리즘 2: 성경을 읽을 때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는 성경과 우리 사이에 시간적, 공간적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시공간의 차이뿐만 아니라 성경의 배경이 되는 고대 이스라엘과는 사회, 문화, 정서적인 차이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사이를 좁힐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심볼리즘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의 정서상 '돼지꿈을 꿴다'라고 하면 미신을 믿든 믿지 않든 기분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유대인들이 꿈에 돼지를 보고서도 좋아할까요? 이렇게 민족마다 그 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정서와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심볼리즘은 이런 정서적 열쇠를 풀어갈 수 있도록 해주어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에 더욱 근접하게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익을 줍니다. 두 번의 강의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물'에 담겨 있는 상징들과 우리와 친숙한 '신체'에 담겨 있는 심볼리즘을 풀어보고, 그 심볼리즘을 담고 있는 성경 본문들을 직접 해석하며,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성경 속의 깊은 의미들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 룯기 2: 룯기는 유대인에게 정말 인기가 있는 책입니다. 유대인은 절기마다 읽는 성경이 각각 정해져 있는데, 오순절에 반드시 읽는 성경이 바

로 룯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책 제목이 여성의 이름으로 된 것은 에스더와 룯기뿐인데, 에스더는 유대인 출신이라고 하지만, 룯기는 유일할 이방 모압여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음에도 왜 유대인들은 룯기를 사랑할까요?

룰기의 배경이 되는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베들레헴은 집/가문:바이트(מֵיט)이란 빵:레헴(רֶחֶם)이란 단어가 합해진 단어로, 빵과 가문의 이야기는 룯기의 중요한 중심 주제가 됩니다. 빵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압으로 떠난 엘리멜렉 가족의 이민 스토리'는 빵뿐만 아니라 가문까지 모두 잃은 죽음과 슬픔의 텅 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역이민하는 나오미와 룯의 스토리'는 빵과 가문이 채워지는 생명과 기쁨의 이야기입니다. 룯기에는 하나님께서 전면에 등장하시지는 않으시지만, 나오미의 텅 빈 고통을 채움으로 반전시키는 하나님의 구속역사가 면면히 흐르고 있습니다. 두 번의 룯기를 통해 내 삶이 텅 비고 하나님께서도 멀리 계신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 채우시기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성필 목사



## 교회학교 찬양사역

**1. 교회학교 찬양 사역팀에서는 어떤 사역을 하나요?**  
초등부 주일 예배 찬양팀 모집과 훈련, 주일예배 찬양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VBS, fall festival, 엘리야 새벽기도와 같이 특별한 경우에는 연합 찬양팀을 구성합니다. 함께 할 찬양을 고르고 율동을 만들며 찬양팀을 훈련하고 찬양을 인도합니다.

**2. 어떤 분들이 섬기고 있으며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나요?**

부서마다 찬양을 인도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초등부는 20여 명의 학생들이 리더 선생님과 함께 찬양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무대에서 찬양과 율동을 함께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외우며, QTin 나눔 등으로 먼저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3. 예배를 위해 언제, 어떻게, 얼마나 연습을 하나요?**

처음 찬양팀에 조인하면 두 달간 훈련 기간이 있고 그다음 찬양팀에서 함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보통 VBS 준비 때는 6주에서 7주 동안 아침 7:30부터 9시까지 연습을 합니다. 물론 주일에도 예배 전에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을 20분 정도 연습하고 무대에서 같이 찬양합니다.

**4. 은혜받은 순간을 나눠주세요.**

아이들이 하나님께 기쁘게 감사함으로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할 때 큰 은혜를 받습니다. 초등부 찬양팀으로 섬겼던 아이들이 자라서 중고등부

에서 찬양팀으로 섬길 때 그리고 다른 어린이 부서에서 찬양팀 리더로 섬기는 모습을 볼 때도 기쁘고, 감사하게 됩니다.

**5. 앞으로의 비전을 나눠주세요.**

모든 부서마다 훈련된 찬양팀이 세워지기를 바라며, 찬양팀으로 많은 학생이 지원해서 훈련된 예배 찬양팀이 설 수 있도록 부모님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대 찬양팀을 인도할 훈련된 리더들이 많이 배출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문의: 마상오 집사 (213) 999-6001

여름 선교 특집 ① KCC



“ 지난 7월 10일부터 13일까지 100여 명(2세 학생 73명과 1세 봉사자 36명)이 참여한 KCC 워싱턴 DC 미션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올해는 탈북자 출신으로 북한 인권을 위해 힘쓰시는 지성호 국회의원이 참석해서 북한의 열악한 실상에 대해 알려 주시고 북한 인권 회복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시며 멘토로서 모든 행사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첫날은 바يب을 박물관, 코리아 워 메모리얼, 그리고 백악관 앞에서 북한 동포 인권 회복을 위한 피켓 시위를 했고, 둘째 날 West Lawn Rally에서는 Katie Porter, Young Kim, Michelle Park Steel 등 캘리포니아 연방 하원의원들, 그리고 텍사스 상원의원인 Ted Cruz가 나와 학생들을 격려하며 북한의 인권 회복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연이어 연방 의회를 방문했는데 참가자들이 3개의 조를 이루어 12명의 연방 상, 하원 사무실을 방문하며 북한 인권의 회복과 관련된 법안이 통과될 수 있기를 호소하였습니다. 2세와 1세가 함께하는 KCC 미션은 북한이 북측으로 통일되고 북한 동포의 인권이 보장되는 그날 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

KCC 워싱턴 DC 미션에 처음 참여했지만 통국 기도회부터 오랫동안 이어져 온 북한 인권 회복의 울부짖음이 결단코 헛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팔이 잘리고 다리를 잃어가며 그 지옥 같은 곳을 벗어나 자유를 얻어 마음껏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할 수 있도록 목숨 걸고 탈출하는 '우리 북한 동포들의 목소리'가 되어 주는 중요한 사역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미션을 통해 저희 2세 아이들이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왜 이 미션이 꼭 계속 되어야 하는지 바로 알기를 기대합니다.

김종곤 집사

이번 KCC를 통해 참가하게 된 워싱턴 DC 미션 트립은 Christian Korean American 이라는 정체성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살아가지만 분단된 조국인 한국인으로서 해야만 하는 일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앓는 이 같은 존재가 되어 있지만, 그 어두운 땅에서 자유를 기다리는 동포들이 있다는 것을 멀리 미국 땅에서 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요셉, 다니엘, 에스더가 그랬던 것처럼 멀리 타국에서 살게 하시는 이유를 깨닫게 될 때가 오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목소리를 낼 수 없어 숨 죽이고, 자유, 특히 복음의 자유가 없이 배고픔과 두려움, 고통 가운데 살아가

는 동포들을 대신해 목소리를 내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물리적인 교회 건물에서 벗어나 사회 속에서 크리스찬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살아가는 삶을 돌아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혜진 집사

My view of North Korea was limited to the media which was mostly about militarism. KCC changed my views because all our activities for the North Koreans humanized the people and made me think more about their circumstances without basic freedom just because they were born in North Korea. Seeing the collective unity in everything that we did for this common purpose of justice, and the impact we can have even with small numbers are unimaginable. After the DC Missions, my attitude in life changed and I must give more thanksgiving but also con-

tinue to pray and advocate for the North Korean people.

Caleb Jang(12학년)

Before my participation in KCC DC Missions, the word 'North Korea' resembled the image of darkness, threat, and Kim Jong Un. My KCC experience helped me mirror my own personal growth and gain a new perspective on the potency of the voice's capability to strive for freedom for the voiceless. During our closing sessions, we heard testimonies and worshiped together as one voice in Christ. As tears were filling my eyes, I realized that now I am able to use my own voice to be the voice for our fellow North Korean blood-related brothers and sisters just as the program strives for.

Sarah Kim(11학년)



소망부 VBS 후기

# 감사하신 하나님



올해 소망부 VBS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하신 전도사님과 교사분들의 열정에 모든 것이 빛났고, 매순간이 은혜로 충만했습니다. Bible message, craft, snack craft, 세족식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기쁨이 모든 채플과 EM 성전 그리고 체육관까지 가득하니 봉사자와 교사인 저희가 아닌 소망부 친구들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인도하고 있음을 깨닫고 회개하였습니다. 주님께 감사함을 마음에 가득 품고 내년



소망부 VBS를 고대하며 우리 소망부 친구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혜현 집사(교사)

나눔으로 인해 기쁨을 갖는 아이들이 되기를 기대하며, 봉사해 주신 많은 분들과 전도사님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윤희 집사(학부모)

소망부 VBS가 베델교회 모든 분의 든든한 지원과 기도 덕분에 잘 마쳤습니다.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한 달 전부터 준비작업을 하고 봉사자들을 모집하는 걸 보면서 그 뜨거운 열정과 즐거운 섬김의 손길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환영 세례모니로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받쳐 주시고 Day program 통해서 아이들이 말씀을 배우고 즐거워하는 모습은 뜨거운 감동이었습니다. 교사분들과 아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즐겁게 울동하며 찬양하는 모습도 보는 내내 너무 행복했습니다. 한 해 한 해 한 걸음씩 더 성장하며 하

베델교회 VBS 봉사에 여러 번 참여 해 보았지만, 개인적으로 이번 소망부 VBS를 통해 가장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소망부를 섬기는 것은 처음이어서, 소망부 학생들을 돌볼 자격이 없다고 느끼고 있던 저에게 소망부 모든 분들이 매일 따뜻하고 친근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학생들과 어른들로 구성된 봉사자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디오 촬영을 섬기게 하신 하나님은 편집할 수 있는 창의적인 영감을 주셨고, 소망부에 속한 모든 분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영상도 선물같이 남기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모든 학생과 봉사자들을 만나서 너무 감사하고 내년에도 또 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김앤드류 간사

내 신앙의 자서전

##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박문수 집사



어린시절 교회 성도분들이 저희집 작은 방에 모여 예배를 드리면 찬송을 따라 부르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태어나기 전 늦은 나이인 39세에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이후에 거의 모든 일가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도 열심히 시골의 여러 개척교회 설립을 도우셨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설립되도록 기도 하시며 동분서주 하셨습니다. 형님들과 매형이 목사 안수를 받으셨을 때 제일 기뻐하셨던 부모님 모습이 생각납니다.

저는 중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버스와 기차로 통학했는데, 몸이 허약했기 때문에 장거리 통학으로 힘들어서 학교 성적이 좋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학원 진학의 길이 열렸고, 졸업 후 대전에 있는 연구소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유학의 길을 열어 주셨고 유학 시절 하나님을 가까이서 만나는 일을 경험하고 믿음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유학 올 때 어머니는 "네 하나님 여호와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신명기 31:6)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여러 직장에서 일하면서, 이직과 실직, 체류문제등 어려운 시간에도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도 이겨내니 순탄하게 지금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돌이켜 보면 저같이 내성적이고 나서기를 싫어 하는 사람이 경쟁 사회 속에서 인정받고 이겨 낼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최근에는 275개 이상의 언어로 선교방송을 하는 기관에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제 경험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늘 저를 위한 어머니의 기도가 제 인생 안에서 역사 해주셔서 지금까지 평안하게 올수 있었음을 깨달으며, 제 경험과 신앙을 다음세대를 위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섬기기를 다짐하며 그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 해주실 거라 믿고 기도 합니다. "나의 갈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아버지의 찬송이 나의 찬송이 되었습니다.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 기획/행정/기도: 이충경 목사
- 사랑/BCA/QTM: 정승락 목사
- 소망/전도폭발/이웃사랑: 주성필 목사
- 믿음/예배/선교: 김홍식 목사
- 화평/베델위십/셀: 박경철 목사
- 은혜/교회학교: 박성권 목사
- 충성/훈련/평생교육: 조태현 목사
- 새가족/경조/예향: 한순고 전도사
- BGC: Dan Nam 목사
- BGC(College/Worship): Peter Lee 목사
- 일본어 예배/헵시바: 손용주 목사
- 예삼채플(총괄): 강문구 목사
- 예삼채플: 공병주 전도사
- 예삼채플: 강수연 전도사
- 영어중고등부: 현호승(Daniel) 전도사
- 영어중고등부: 김한나(Hannah) 전도사
- 한어중고등부: 이형선 전도사
- 초등부: 이정연 전도사
-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 K-1: 정가영(April) 전도사
- 유아부: 정티나 전도사
- 영아부: 이진영 전도사
- 아기학교: 김재은 전도사
- 소망부: 박정민 전도사
- Beyond the Blue: 이란해 전도사

◎베델 콰이어 및 찬양팀◎

- 지휘자: 김형직 목사
- 솔리스트: 최정원
- 뮤직디렉터: 정봉화
- 반주자: 한현미, 이정은

◎사역 간사 및 인턴◎

-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 영어중고등부: 이사라, 최소영 인턴
- 방송실: 김앤드류 인턴

◎교회 직원 및 간사◎

- 사무장: 마현진
-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 사무실: 인현미, 김은영
- 재정실: 이수민
- 방송실장: 박준남 전도사
-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 음향: 강창위
- 방송실: 최중형, 김지현
- 디자인: 박선경
- 웹: 김정아
- 수양관: 오춘란

지역광고

# 새생명축제: 리본(Re Born)

베델 성도 여러분 9월 10일 설립기념 주일에 열리는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탄생한 '리본'을 소개합니다. '리본'은 새 생명 축제를 앞두고 교회를 중심으로 인도자와 VIP 간의 나눔과 은혜의 공간입니다. '리본'은 교회, 인도자와 VIP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교회를 주축으로 인도자를 지원하고 VIP에게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 때로는 지나친 관심으로 부담스러워지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너무 조심해서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리본'을 시작합니다. 막막할 것 같은 전도와 복음 전하기, 성도님들에게 '리본'이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차원의 복음 전하기 '리본'을 기대해주세요. 7월 30일 시작 합니다.

'리본(Re Born)은 말 그대로 VIP가 새롭게 태어난다는 뜻이고 인도자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다른 리본의 의미는 인도자와 VIP를 사랑의 끈으로 묶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주안에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섬길 수 있게된 건 처음으로 교회 갔을 때 누군가가 반갑게 잡아준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변 분들 누구에게라도 그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서 먼저 받은 은혜를 나누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또한 올해는 새생명 축제를 위해 온 교인이 함께 특별 새벽기도로 나아갑니다.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리본'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 ▶ 일시: 9월 10일(주일) 1-3부 주일 예배
- ▶ 리본: 7월 30일(주일) Web App 오픈
- ▶ 새생명축제 특별 새벽기도회:  
9월 5일(화)-8일(금) 5시 30분, 9일(토) 6시
- ▶ 문의: 임동역 장로 (323)356-0521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8월)	8/6:	①부-박영선	②부-허용진	③부-김태현	④부-이효민
	8/13:	①부-박지학	②부-박원규	③부-유형석(5313)	④부-윤여훈
	8/20:	①부-안성희	②부-백영만	③부-배진용	④부-김 명

헵시바 토요일 새벽 대표기도(8월) | 8/5: 김진원 8/12: 김태운 8/19: 김현일 8/26: 유형석(3330)

강단꽃(7,8월) | 7/30: 류재영, 이태형 8/6: 김종현, 현승원 8/13: 김창남, 오경희, 이나원, 최하차

[의무실 (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마 준(한의학), 간호사-이옥선 다음주 | 의사-박종구(치과), 간호사-채수정

선교후원

-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욱, 김진영(김은경), 이버나버(옥소리),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Reza, 박기쁨
- BAM | 서형렬(서정희)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 | 유요한(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삭(정인나)
-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경(양선) 온두라스 | 이동철(이순미)
-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필리핀 | 김승봉(유영선)
- 창의적접근지역 | 이희숙, 길예평(길진명), 허바(배안), 이상훈
-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터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MMMA, GP미주본부, NAUH,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The Gospel Coalition(TGC)
-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TS, CGN TV
-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베델수요예배 8월 베델수요예배는 주성필 목사의 '2+2: 심볼리즘과 웃기' 시리즈로 드러집니다. 수요일 오전 10시 현장 예배에 참여하시어 깊은 기도와 말씀의 은혜를 경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녁 7시에는 Youtube로 실황이 방송됩니다. (4면 참고)

◆ 세대를 뛰어 넘는 헵시바 일천으로 Always Be There!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기도가 곧 선교입니다. 헵시바 기도회에 일천 명이 모여 선교지를 향하여 기도합시다. 세대를 넘어 온 세대가 함께 모여 기도의 사명을 다합니다. Always be there! 항상 기도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일시/장소: 매주 토요일 6시, 본당

\* 교회 홈페이지에 헵시바 일천을 위한 기도제목이 update되어 있습니다.

◆ 새생명축제 2023 한사람이 한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새생명축제가 베델교회 설립기념 주간인 9월 10일(주일)에 열립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생명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역사를 위해 온 교인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7면 참고)

리본(Reborn): 7월 30일(주일) Web App 오픈

새생명 축제 특별 새벽기도: 9월 5일(화)~9일(토)

문의: 임동익 장로 (323)356-0521

◆ 베델 기도학교 모집 기도학교 신청을 받습니다. 체계적인 기도훈련을 통해 기도의 영성을 배우고, Always be there 비전에 따른 기도의 용사로 쓰임 받고자 합니다. 기도를 사모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일정/장소: 8월 24일~12월 7일(총 16주), 유년부실

접수 기간/방법: 7월 30일(주일)~8월 20일(주일), 본당 앞 부스 또는 교회 홈페이지

문의: 주용중 집사 (949)812-2906, prayer@bkc.org

◆ AWANA 교사 모집 2023년도 AWANA 가을학기 교사와 TA로 섬겨주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가을학기 기간: 9월 8일~11월 17일(11주) 매주 금요일 오후 7시~9시

교사 등록 기간: 7월 23일~8월 13일

학생 등록 기간: 8월 6일~8월 26일(K-5학년)

문의: 이준호 집사 (909)859-5233, Awana@bkc.org

◆ 소망부 토요학교 교사모집 소망부 토요학교에서 소망부 친구들과 함께 하실 교사를 모집합니다.

토요학교 기간/장소: 9월 2일~12월 9일,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1시 30분, 조이채플

문의: 박종민 장로(949)742-1285, 박정민 전도사 (909)319-8023

◆ 베델한국학교 교사 모집 8월 26일 가을학기 개강을 앞두고 베델한국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한글 교육에 대한 열정과 복음 전도의 사명이 있으신 분들의 적극적인 지원 바랍니다.

문의: 윤주원 장로 (949)892-9516, 윤미나 집사 (310)913-3360

◆ 교회학교 QTin 영문판 8월호 어린이들을 위한 Monthly 8월호 영문 QTin 교재가 실내카페에서 판매중입니다. 자녀들을 위해 꼭 한부씩 구매하셔서 온세대 큐티운동에 동참 부탁드립니다.

◆ 아기학교 가을 학기 개강 안내 등록은 교회 웹사이트와 주일 1, 2, 3부 예배 후 본당 앞 부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간: 8월 24일~11월 16일, 13주 동안 매주 목요일

등록 대상: 15-48개월, 40명 정원(선착순)

문의: 김재은 전도사 (949)923-7094, 김경자 권사 (949)351-6123

◆ 베델콰이어 단원모집 베델콰이어와 오케스트라에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주중 연습은 금요일 저녁에 실시됩니다. 더욱 풍성하고 힘있는 콰이어가 되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문의: 오은옥 권사 (714)615-7096, 김형직 목사 (909)964-2537

◆ 교역자 동정 통역과 영어 양육, 제자반을 섬기시던 이앤드류 전도사가 7월로 사임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 축하해 주세요

- 오늘(30일) 3부 예배에 류성빈/최윤이 성도의 딸 류리안(Asher Ryu)의 유아세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 언약백성 된 것을 축하합니다.
- 예살채플의 강민석 형제와 김정빈 자매의 결혼식이 7월 29일(토)에 있었습니다.

◆ 기도해 주세요

- 조지아 단기선교가 7월 31일(월)~8월 9일(수)에 있습니다.
  - 브라질 비전트립이 8월 3일(목)~8일(화)에 있습니다.
- 안전하고 은혜로운 사역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로해 주세요

故 문송주 집사님(문경숙 권사의 남편)께서 7월 26일(수)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교회학교 주중 모임 안내	주중 예배 및 기도모임 안내	베델뉴스 편집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AWANA(어와나):<ul style="list-style-type: none"><li>- Sparkies(유년부)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K-2학년)</li><li>- Truth&amp;Training(초등부)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3-5학년)</li></ul></li><li>■ 중,고등부:<ul style="list-style-type: none"><li>- BYM(영어중고등부) /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비전채플</li><li>- CIM(한어중고등부) /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살롬채플</li></ul></li><li>■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시, 한국학교 각 교실</li><li>■ 아기학교: 목요일(15-48개월) 오전 9시 45분, 할렐루야채플</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주중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시 30분, 본당</li><li>■ 헵시바 새벽기도회(토): 오전 6시, 본당/온라인</li><li>■ 베델 수요예배: 오전 10시, 본당 오후 7시, 온라인</li><li>■ 예살금요예배(청년): 오후 7시 30분, 임마누엘채플</li><li>■ 주일 레위기기도 모임: 1-3부 예배시간 중, 컨퍼런스룸</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li><li>■ 편집장: 박은혜 권사</li><li>■ 기자: 김규현 집사, 김성복 집사, 김혜영 권사, 남우영 집사, 배은섭 집사, 윤은정 집사, 이지애 집사, 정민주 집사, 최 신 권사, 황리나 집사</li><li>■ 사진 기자: 박상곤 장로, 최호경 집사, 차규양 장로</li></ul>

비전 주차장 3345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주차 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베델/갈릴리수양관 31600 El Cariso Trail, Lake Elsinore, CA 92530 ◆ 수양관전화번호(예약문의) (949) 943-9697 ◆ E-MAIL bgrcenter@hotmail.com





주일설교시리즈 Zechariah Series

Sunday Worship Sermon Note

---

**The Warrior Riding the Foal of a Donkey**  
(Zech 9:11–17)

Speaker: Rev. Bryan Kim

1. The martyrdom of Deacon Stephen by stoning is described in Acts (Acts 7:54-60). He was killed for his faith in Jesus Christ, instead of experiencing wonderful results to happen. What should we do if similar things happen to us?
  
2. The promise of God is that He will rescue us from the “waterless pit.” What meaning does the word ‘pit’ carry for the people of Israel? (v. 11, Ref: Gen 37, Jer 38:6, Psalm 30:3, 40:2)
  
3. God said He will become the warrior of war and battle for the people. How does this appear? (v. 13-14)
  
4. The victorious God’s people will be like sparkling jewels, like bountiful grain and like new wine (v. 17). Let us see how the Book of Revelation expresses this, and compare. (Ref: Rev 19:1, 7)
  
5. John the Baptist who foretold the arrival of our Lord was martyred by beheading. What did Jesus say to console the followers? Please discuss the consolation for us fellow believers as we run toward the final victory. (Ref: Matt 11:11, Rev 6:9-11, Acts 7:55)

Apply to Life

